공외기 자료조사(2312282 임다희)

-북한의 공공외교 중 하나:스포츠 외교에 대하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84617 평창올림픽과 북한의 스포츠 외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핵개발과는 별도로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스포츠에 주목하였고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악의 축’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의 진행을 위해서도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2017년말 국가과제로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스포츠외교의 시작: 2013년 평양외교관 체육행사 개최로 시작

로동신문에 의하면 중국,러시아,유럽,UN대표기구 등 평양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인사들과의 축구,농구,배구 등 작은 스포츠행사를 시작함으로서 대외관계 회복을 위한 작은 접촉을 시도함(노동신문,2013 /허정필,김용현,2015,455).

북한정부는 평양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요원들과의 스포츠를 통해 관계개선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중국,러시아와의 스포츠교류를 통해 대중국,대러시아 관계개선과 협력을 도모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에 참가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 TV에 개막식을 방영하였고 스노보드,스키점프,스피드스케이트,루지 등 소치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면을 편집해 중계했다(연합뉴스,2014.2.17.). 이는 러시아 푸틴정부와의 관계개선과 친목도모를 통해 북러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여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데니스 로드먼을 활용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스포츠외교에 대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데니스 로드먼이 이끄는 미국 농구단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와 조선체육대학 햇불농구팀의 경기가 2013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친선경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람하고 데니스 로드먼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동행함으로서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유명 NBA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스포츠 외교를 시작한 것으로볼 수 있다(로동신문,2013.3.1)

-국제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로동신문 보도 내용으로 본 북한의 미디어 외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42737 북한의 미디어 외교 연구: 약자의 국제사회 여론전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북미관계의 중대 사건을 기점으로 로동신문의 보도양상과 의미화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파악했다. 분석결과, 북한 미디어는 국면별로 차별화된 보도주제, 대미인식을 보임으로써 북미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면 1기: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 2017년 9월 19일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 파괴’ 등 모욕적인 발언>>이에 대응하여 9월 22일 김정은의 대미 성명 발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대내외적으로 대미 비판 수위 높아짐)

ㄴ정치, 군사 관련 보도 수치 높음. 주변국들의 경제, 사회적 현안 배제. 부정적인 대미 인식 드러냄.(정책 비판, 인권 문제, 총기 사고 등 조명)

2기: 북미관계 양상이 변화하는 화해기.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열린 북미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북미 양국의 적대와 긴장, 갈등 극복 의미.

ㄴ정치, 외교 관련 보도 수치 높음. 국제사회의 이슈를 비중있게 다룸. 북미정상회담, 남북관계 개선 등의 정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 미국에 대한 부정적 기사 현저히 감소.

‘평화’ 키워드 강조>>국제사회의 평화 의제 선점, 자국의 선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 자신들이 내세우는 평화, 안정의 의미지를 주변국에 확산하는 의미화 전략.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에 편승.

3기: 조정기.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북한은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담 결렬>>갈등, 화해 아닌 조정 국면으로.

ㄴ정치, 외교가 비중있는 가운데 사회, 군사 관련 기사도 증가.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국제기사 많았음. 미국에 대해 중립적 입장의 기사 많았음.(정상회담이 결렬되었으나 새로운 대외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북한의 상황>>미국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로 드러남)

>>북한의 미디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x, 자국이 당면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유불리를 따짐. 국가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되는 보도 전략을 취함.

북한은 2006년 5월 서방 언론 중 처음으로 미국 AP 통신사(APTN)의 평양 지국을 설치했다. 평소에는 직원들이 프로듀서와 연락해 영상을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의 국제뉴스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0년 들어 이 매체의 뉴스는 과거에 비해 2배 높은 월 평균 1000건에 이르렀다(민족21, 2011). 기사는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를 향한 비난적 어조가 대부분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선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다. 내부적으로는 정보를 통제하고,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국제사회를 향해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북한 미디어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국가이익의 수호’와 당 중심의 기관지라는 특수성이 공히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관계가 호전되는 시기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론 전략에 있어서도 적대적 시기에는 ‘방어수단’ 프레임이, 우호적일 때는 ‘신뢰회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선상신⋅김위근, 2012). 북한 미디어는 상대국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기보다 정세 변화에 따라 차별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 국면에서도 확인된다. 로동신문은 칼라 사진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향해 자국의 선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으며, 변화된 외교적 흐름에 스스로 편승하는 모습을 그렸다. 인스타그램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도 북한은 자국의 외교적 성과를 나열하고, 세계인과 소통하기도 했다(나혜윤, 2019). 일련의 논의들은 북한 미디어가 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의 대내외 미디어-로동신문, 청년전위, 조선의 오늘, 우리민족끼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81139 김정은 시대 북한 스포츠외교의 활용 -사회주의 보편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은 적극적인 스포츠외교 활동을 실시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북중 스포츠 교류협력, 북러 스포츠 교류협력 등 지역 스포츠 교류협력과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등의 국제 스포츠 교류협력도 모색하였다.김정은 시대 북한의 스포츠외교가 과거와 달리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북한 체제 가장 높은 곳은 정치가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없이는 스포츠외교 역시 한 걸음 나갈 수 없다는 한계도 나타났다.

-북한의 고립과 평창올림픽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김정은 시대는 핵과 경제를 동시 발전하려는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김정은 시대 지속된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를 채택하여 북한 대부분의 수출과 수입 제한, 물자 이동 제한, 주요 인사의 이동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의 국가들이 동참하였다.

고립된 북한은 2018년 1월 강경한 외교정책이 아닌 유화적인 외교정책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대외관계 개선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남북 간 소통 실시, 2018년 3차례 남북정상 만남, 2018년 북중, 북미 정상회담 실시, 2019년 북러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스포츠외교

김일성 시대(257p)-올림픽 정식 가입,가네포 경기대회, 우수한 경기 실적을 스포츠외교 성과로 선전(ex: 신금단 선수 육상 세계신기록)

김정일 시대(258p)-국제 스포츠 대회와 올림픽을 통해 근접국가 간 교류와 사회주의체제 전파(ex: 정성옥 선수 인터뷰), 올림픽 스포츠 명성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지고 스포츠외교 활용

김정은 시대(259p)-김일성, 김정일의 스포츠 정책을 계승하면서 스포츠의 유희적 측면과 경기교류 측면을 강화,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설립, 체육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장애인 체육 등장. 핵심 권력자들의 적극적인 스포츠외교가 전면에 등장.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스포츠외교는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중국과 스포츠외교를 통해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포츠 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하이브리드 협력을 추진하면서 상생협력을 도모하였다. 둘째, 근접 국가들과 낮은 수준의 체육경기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란, 짐바브웨, 이집트 등의 주요 국가들과 스포츠 친선경기를 통해 소통을 시행하였다. 넷째, 지속적인 국제경기대회 참여 및 개최를 통해 스포츠 명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섯째, 남북 간 소통과 협력에 있어 스포츠를 대화의 창구로 활용하였다.

스포츠 외교(평창올림픽)의 효과: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대내 통치를 통해 3대 세습을 완료하였지만 2018년 전까지 공식적으로 정상회담 등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은 북중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러정상회담까지 진행하면서 전세계에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단번에 알렸다.

김정은 시대 스포츠외교-’조중체육교류의정서’ 체결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 간 교류/

-동아시안 게임 참여,

-‘조일체육교류’(1972년부터 지속, 2012년 40주년 맞이> 북한 측이 도쿄에서 기념간담회 진행.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체육은 정치와 분리되어 지속적으로 교류),

- ‘조러스포츠교류’(북한과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시: 지역협력으로 군악대 공연, 청소년 작품 전시회 등 문화교류 지속.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도 북러 합동 훈련과 친선 시합 제안)

>>대외 관계 개선, 친선관계 유지, 북한식 사회주의 우월성 전파

-개발도상국들과 교류: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친선체육교류

-국제사회와 교류: 런던올림픽(종합순위 20위 달성>DPRK 국가브랜드 제고>체육환경 개선, 체육인 처우 개선,체육강국건설 정책 목표 수립), 리우올림픽(종합 34위), 평창올림픽(남북 단일팀과 북한의 DPRK 국가명 전 세계 방송에 홍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북한팀 종합 10위, 남북단일팀 종합 28위)

-남북 교류: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2013 청소년역도선수권대회, 탁구선수권대회

김정은 시대 스포츠외교 정책의 주요 변화

-스포츠외교를 위한 대내 체육 환경 개선

-체육강국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씨름, 태권도 대외적으로 홍보 강화>>2018년 11월 민족씨름이 남북공동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2017년 태권도 전당 준공>>세계선수권 대회 개최, 남북태권도 합동시범교류 등 진행.

-국제표준 준수와 전문체육인 양성>>국가브랜드 제고.

세계화와 국제표준 준수가 강조됨. 2016년부터 노르웨이 출신의 ‘욘 안데르센’ 을 북한 남자축구 대표로 약 23개월간 선임하여 유럽축구 스타일을 적용. 세계적 시각 확장을 위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경기를 주민들에게 정규방송으로 정기적으로 중계. 스포츠대회 국제규범 준수를 위해 북한 평양 개최 ‘2013년, 2019년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에서 태극기 계양 및 애국가 연주.

전문스포츠 선수를 통한 스포츠외교: 2013년 5월 평양국제축구학교 개교(축구 선진국의 코치, 교육방법 도입으로 북한 축구의 세계화 선언)>>2020년 12월 기준 한광성(카타르 알 두하르 SC), 최성혁(이탈리아 세리에 C SS아레초), 박광룡(오스트리아 SKN 장크트푈텐) 등이 해외 프로팀에 입단.

-자본주의 스포츠의 부분적 적용

자본주의 상징 기업의 스포츠 후원이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등장.

2000년 8월 시드니올림픽 필라 후원, 2001년 2월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에서 필라의 광고판이 북한 TV 통해 중계( <https://imnews.imbc.com/replay/2001/nwdesk/article/1874503_30743.html> ) 4월 국제마라톤 경기대회에서 필라와 하이네켄의 광고판 등장

>>2010년 이전까지 중국 차이나 홍싱 스포츠가 후원>>2010년 남아공월드컵부터 2015년까지 이탈리아 스포츠용품 업체 레게아 가 후원

>>2019년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에서 경기장의 별무리무역회사, 금강산화장품 등 다수의 광소판을 확인) (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5>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51554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 추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중심으로

ㄴ북한 대내외정책 변화의 원동력: 세계화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1091637003&sec\_id=530101

ㄴ정치적 결정에 따라 고립과 퇴보의 길 가는 북한 스포츠 외교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대대적인 남북 교류에 나섰으나 트럼프 정부와의 정치적 협상 무산 이후 북한의 스포츠 외교는 다시 고립의 길을 가고 있음

(북한 공공외교의 한계: 외교 정책의 근본적 목적이 체제 유지/선전에 있고 국제 상황에 따른 대외 정책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됨?)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greg/gscu-08142023095621.html

ㄴ’스포츠 외교’ 와 북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외교’가 아니라, 인권 상황 개선, 투명성, 국제법과 같은 확실한 국제기준 준수를 통해 외교 신뢰성을 찾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

https://www.bbc.com/korean/55030408 재난방송과 북한 외교 변화

ㄴ북한 방송의 변화: 과거 경직된 분위기의 보도방식에서 현장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방식으로.(북한의 발전상, 장점만을 선전, 재난 보도는 통제되었던 과거>> 공영방송을 중단하고 재난상황 속보를 전달하는 모습 나타나는 현재

지적: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전 선동의 내용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형식의 변화 이유: 공식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북한 땅으로 여러 외국 콘텐츠들이 들어오다 보니 경쟁이 일어난 것. 프로파간다 방송을 하는 북한 매체 입장에서 중앙방송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흥미를 끌어야 함.

북한 방송에서 보이는 다양한 시도들은 채널을 좀더 흥미롭게 만들어 많은 북한 주민들이 보도록만들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방송을 통한 선전 선동의 목적은 변하지 않음. 국제 사회에서 솔직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정작 가리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보이는듯 하면서도 일종의 심리전을 쓰는 것.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30566 북한 유튜브

:뉴 미디어를 활용해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강조. 영어로 제작함을 보아 관광/홍보를 염두에 둠.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428511\_29114.html 북한 유튜브 2

:출연자와 배경은 참신하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 노동당 선전선동의 본질을 숨기지 못함.